보도 자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소 : 우)55030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16, 3층 전화 : 063-247-1503		
	메일 : jbsadd420@gmail.com 홈페이지 : https://jb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5년 4월 30일(수)
담당	양은주 063-247-1503	페이지	4p.
제목	한국천주교 탈시설 권리보장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자유로운 삶,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로 !!

한국 천주교 탈시설권리 보장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일시: 2025년 5월 1일(목) 오후2시 -장소: 전주 중앙성당 앞
-주관 및 주최: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외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북장차연')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전북420공투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북의 장애인단체 및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교황님의 선종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세계장애인의 날 등 주요한 때마다 장애인의 동등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회와 사회의 노력을 촉구해 온 교황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보고서가 장애인과 동행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와 방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기여를 환영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자체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장애인을 외면해 온 방식을 모방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누구와 어디에서 살지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 […] 학대 등의 차별은 장애인을 거부하는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런 문화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낮다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세계장애인의 날 맞이 메시지, 2022. 12. 3.

"많은 장애인들이 "소속감 없이 참여하지 못한 채 (덩그러니)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완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들을 돌보는 것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지만, 점차 각 개인을 독특하고 고유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새 회칙 「모든 형제자매들」(Fratelli Tutti), 2020.

3. 지난 3월 18일 여야 합의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천주교는 이 법을 중증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법으로 왜곡하며 전국의 지역성당들에 입법폐지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입법폐지는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니 신자들이 적극 동참할수 있도록 신부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입법폐지 서명운동은 6만명을 넘겨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4.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초연대표와 활동가들이 4월 18일부터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 고공농성을 시작했고, 천주교사회복지위원회와 전장연은 4월 25일 TFT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정성환 신부에서 이병훈 정책위원장으로 연락 담당이 바뀐 이후, 고공농성에서 내려올 것, 박경석 대표가 참석하지 말것의 조건을 걸었고, 결국 천주교는 약속했던 4월 25일 TFT 간담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 이에 한국 천주교의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보도와 연대 바랍니다.

<기자회견 순서>

-대표 여는발언
-연대발언1 (시민사회)
-연대발언2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천주교는 탈시설 권리 보장하고 자립지원법 수용하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천주교 각 지역 교구에 계신 교구장 및 성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천주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 위에서 열흘 넘게 농성중인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연대하기 위해 성당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오랫동안 시설이라는 낡은 감옥에 갇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국제 장애인권 기준인 유엔장애인권리 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장애인 탈시설을 권고했지만 아직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외면하는 탈시설권리를 진보적 장애계가 나서서 절박하게 투쟁해 권리로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 천주교는 이러한 장애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오히려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며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며 장애인들의 삶을 더욱 억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올해 3월 국회에서 제정된 자립지원법이 장애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전국의 성당에 공문을 보내 자립지원법 폐지 청원 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였습니다. 폐지 청원은 6만명을 넘어 섰습니다.

자립지원법이 장애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장애인 시설입소의 비자발적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누구나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고 싶지 어느 누가 숨막히는 시설에 들어가 살고 싶을까요?

이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초현 대표와 활동가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시설에 갇힌 장애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요구하며 10일이 넘게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신의 뜻이자 주님의 사업이라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전국 175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이익을 챙기는 시설 운영 주체로서, 장애인의 탈시설을 조직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24년 말씀하신 “장애인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 완전한 인간 주체“이며 “장애가 개인의 비극으로 간주되고, 장애인이 사회의 이물질처럼

다뤄지면 ‘숨겨진 망명자(hidden exiles)’가 된다” 고 말씀하신 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신부들은 발달장애인의 지능을 비인간동물에 비유하며 ‘탈시설과 자립생활 능력이 없다’는 혐오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천주교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한국 천주교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 한국 천주교는 장애인 탈시설을 왜곡하고 가로막아 온 모든 행태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자립지원법'을 수용하라!
2. 한국 천주교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즉각 철회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탈시설을 지지하고 협력하라!
3. 한국 천주교는 탈시설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와의 TF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설 폐쇄 및 지역사회 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4. 유흥식 추기경은 한국 가톨릭 신앙의 대표로서, 탈시설은 정의라는 점을 분명히 지지하고, 교단 내 탈시설 반대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2025년 5월 1일

한국천주교 탈시설 권리보장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전북 참가자 일동